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보았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께서 도종환 장관과 윤상음악감독을 비롯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도종환장관을 비롯 남측인사들과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월초 《봄이 온다》라는 공연제명이 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인기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에창곡들을 열창하였다. 심한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출연자들은 관람자들과 뜨거운 정을 안고 인사도 나누고 자기들의 평양방문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과 남이 하나되어 화합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공연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로 막을 내리었다.

민족의 화합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마음들이 합쳐져 하나의 겨레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이 남측예술인들에게 꽃다발들을 안겨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손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의 주요배우들을 만나시어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후 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남측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한 국내의 정치일정속에서도 자기들을 친절히 초청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만

나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자기들의 이번 평양방문목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의 올림픽경기대회로, 성공적인 올림픽경기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올림픽의 리념에 맞게 북한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올림픽력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출전함으로써 북과 남의 평화와 화해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최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올림픽으로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2022년 베이징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준비를 장기적으로 협조하며 올림픽연단을 비롯한 국제체육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체육발전에 힘껏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규정과 관례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뿐아니라 북과 남

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울철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이 우리 나라에 벗으로 자주 오길 바란다라고 따듯이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함께 국가너자축구종합팀과 평양체육단 너자축구팀사이의 축구경기를 보시였다.

본사기자

## 대를 이어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긍지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였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다섯해 전인 주제82(1993)년 4월 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성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민족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으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동서맹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준엄한 시기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최전연의 초소들을 찾고찾으시어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고 그 어떤 무기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게 나라의 국방공업도 튼튼히 다져주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견지명의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오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송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속에서 강국건설의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그이께서 구상하고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끄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것은 절세의 애국자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의 모진 제재압박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위력, 수많은 현대적인 생산기지와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지식경제강국건설의 힘찬 돌음에는 조국번영의 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벌을 보시면 정답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위주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과 인민이 그려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시였다. 폭파와 췌기밤, 단번숨웃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

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열도가 얼마나 높은것이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애국에 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였고 희생적인 헌신이였다. 그이의 위대한 생애는 말 그대로 라오르의 애국의 불길이었다.

조국통일의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 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가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내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었고 그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표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고 활력소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

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계신다.

그이께서 지금으로부터 6년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사변이였다.

천출명장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지난 6년간 나라의 국력은 최상최대로 강화되고 공화국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전략적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최근 그이께서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부강번영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북남관계에서도 지금 따스한 봄기운이 감돌고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다. 불과 수 십일여간에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극적으로 뒤바꾸어놓은 것이기에 대한 경관과 정세의 목소리는 온 남녘땅과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도, 조국통일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새겨진 믿음이다.

위인의 령도의 손길밑에 공화국은 최후승리의 명마루에로 치달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듯한 봄처럼 겨레의 마음을 후덥게 달구며 온 강토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기운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공화국의 진지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 열리고있다.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향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고있다.

은 민족이 페부로 실감하고 세계가 공감하는 북남관계에서의 극적인 전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전략적구상과 확고한 통일의 지, 통근 결단과 과격적조치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

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시면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라와 민족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하여나가고있

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이 남조선에 파견됨으로써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공동의 행사로 성공적으로 치르어지게 되

의 결단은 막혔던 북남관계의 물줄기를 한순간에 터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 가슴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자주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높

기다. 조선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남사이에 화해와 단합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의도대로 조선반도정세가 흘러가고있다.》, 《김정은위원장

공시키는것이 동족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이어 통일열기가 온 삼천리에 넘쳐나게 만들었다.》

영국 BBC방송은 《현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역할을 하는분은 김정은위원장이며 절묘한 외교행동을 보였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 펼쳐지고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손학미

본사기자

## 민족화해의 흐름을 펼쳐주시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대구에 사는 한 제야인사는 《김정은위원장님은 보통의 담력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내용단과 예측할수 없는 지략,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는 천출위인이시

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계속 반복될시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의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다. 더이상 민족의 분열이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것이 겨레의 열망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북과 남이 다같이 의의있는 대사들을 치르는 올해를 민족사에 뜻깊은 해로 되게 하기 위한 구상을 펴시고 대범하고 통이 큰 제안을 내놓

고 하면서 《현시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은 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력의 결과이다. 세계정치흐름을 힘있게 주도해나가는 김정은위원장님께서

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서는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남북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고계신다. 김정은위원장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이시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절세의 위인이시

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서는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남북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고계신다. 김정은위원장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이시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절세의 위인이시

본사기자

# 화해의 봄은 어떻게 왔는가

봄이다. 평양의 모란봉에는 진달래가 연분홍색 아름다운 빛을 뽐내고 거리들에는 살구꽃,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가 진행되었다.

이보다 앞서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가 진행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 정도자 김정원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관람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평양방문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북과 남이 하나되어 화해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막을 내린 공연은 민족의 화합을 넘니하는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북과 남의 하나의 겨레임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으므로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 예술단의 련환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

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봄은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며 풀과 나무들이 싹트고 푸르러지는 계절이다. 한겨울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기 시작하는것은 해빛이 따스하게 비쳐들기때문이다.

한다면 이 류다른 봄에 겨레의 마음속에 화해와 단합의 새싹이 움터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해준 따스로운 빛발은 어디서 비쳐왔는가.

이해의 첫 아침에 북남관계를 화해와 개선으로 이끄는 위인의 따뜻한 음성이 평양에서 울려져 온 겨레와 세인을 놀라움과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

단과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고 하시던 따뜻한 그 음성.

경에 하는 원수님의 통이 큰 구상과 대용단, 뜨거운 민족애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는 불신과 대결의 얼음을 녹이며 평화의 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공화국의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이 막혔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열어 남측에 과견되어 화해의 열풍을 일으켰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두차례나 남측에 파견하여 민족적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이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곡목선정으로 부러 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고 시연회도 지도하신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민족의 화합을 넘니하는 북

남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남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어 공연을 보아주시고 남측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은 이렇게 찾아온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서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어 구상하시고 펼쳐신 통이 큰 조치들이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따스한 봄을 안아온것이다.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란만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고 가을은 황금의 계절이라고 할수 있다.

봄에 돌아난 새싹을 여름한철 부지런히 가꾸어야 온갖 열매들이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화해와 단

합의 따뜻한 봄기운을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이해의 가을은 북남관계와 통일 위업수행의 길에서 류다른 가을, 풍요한 가을이 될것이라는것이 지금 이 시각 우리 겨레가 가다듬는 생각이고 믿음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

##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 진행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가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페이지를 아로새길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춘남문화상, 안동훈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승철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상욱각각을 비롯한 남측예술단 주요성원들, 남측대련도시범단 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

기구대표들, 체류중 외국순님들이 공연을 보았다.

련환공연무대에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 감동적인 공연활동으로 남남동포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성있는 삼지연관현악단 예술인들과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배우들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북과 남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안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우리는 하나의 겨레임을 과시하는 특색있는 곡목들로 감명깊은 공연무대를 펼쳐보였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연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독창과 중창, 가요연곡, 가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남측예술인들은 북남동포들이 혈육의 정으로 따뜻한 맛이 해주고 극진히 환대해준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평양방문소감도 이야기하면서 성의껏 준비한 애창곡들로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북과 남이 하나가 된 무대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목소리합쳐 구가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였다.

출연자들이 특색있는 종목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피아노도 하나, 언어와 문화도 하나인 우리 겨레는 결코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

내었다.

공연은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삼천리강토위에 통일의 대교향악을 높이 울려갈 의지를 담아 부른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남시다》로 절정을 이루었다.

시종일관 북과 남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쳐지고 동포애의 따뜻한 정과 열이 넘쳐흐른 련환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뜻깊은 련환공연을 기념하여 북과 남의 예술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본사기자

## 온 민족의 관함된 힘으로

4월 6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지 25돌이 되는 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반공화국외침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 련합세력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암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그 무순 《특별사찰》을 운운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갔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비범한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어버이주석님께서 1993년 주체82(1993)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획기적대책으로서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본사기자

## 북남래권도시범단 합동시범출연 진행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망이 날로 높아가는데 북남래권도시범단 합동시범출연이 2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일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 조선대련도시범단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이 합동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예술단, 대련도시범단 주요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남측래권도시범단 성원들은 음악선율을 맞추어 다양한 무도기술과 수법들을 펼쳐보였다.

그들은 여러 타격동작들과 각

이한 격과동작들을 비롯하여 공격과 방어수법들을 활용한 태권도기술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활동적의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관중을 격동시켰다. 정확한 타격들과 꺾기, 메치기 등 세련된 기술수법으로 적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호신술은 우리 태권도의 위력을 잘 보여 주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이 폭발적인 힘으로 벽돌, 기와, 화강석판을 단숨에 조각낼 때마다 장내에서는 환호와 아낌없는 찬사가 울려나왔다.

태권도로 민족화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데 이바지하려는 일념안고 무대에 함께 출연한 북과 남의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로써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범출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손을 흔들며 출연자들을 열렬히 축하



## 남측래권도시범단 시범출연 진행

남측래권도시범단의 시범출연이 1일 대련도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내각사무장, 김경호 조선대련도시범단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이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남측래권도시범단 주요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시범단성원들은 음악선율에 맞추어 다양한 무도기술과 수법들을 보여 주었다.

출연자들이 여러 기교동작들과 각이한 위치의 목표들에 대한 격과동작들을 비롯하여 공격과 방어수법들을 잘 활용한 태권도기술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따뜻한 동포애의 정을 안고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시범출연이 끝나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남측래권도시범단 주요성원들은 출연자들을 만나 축하해주었다.

본사기자



동경상태에 있던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공동의 대사, 《통일올림픽》으로 성대히 치러졌으며 북과 남의 대표단, 예술단, 대련도시범단의 래왕을 통해 민족단합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북과 남의 가수들이 함께 손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북남래권도시범단들이 합동시범출연을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북과 남의 힘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힘으로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절감하고있는 우리 겨레이다. 역시 우리 민족은 피출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단일민족이고 둘이 되면 못할 하나이다.

이렇듯 북과 남이 서로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노라면 노래 《우리는 하나》의 구절구절과 함께 6.15통일시대의 벽찬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해주었다.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북남래권도시범단 합동시범출연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의 상징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며 북남관계발전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 《우리는 하나》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출도 하나 하나 이 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할 하나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였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 부르면 부를수록 민족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되려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통일 지향과 념원을 폐부에 깊이 새기게 해주는 명가요이다.

이 노래는 2002년에 황진영이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노래는 나오자마자 온 겨레의 가슴을 울리었다.

당시 이 노래에 접한 사람들은 《정말 명곡이다. 노래는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심장을 팡팡 울리여준다.》, 《민족의 강렬한 통일열원과 지향이 반영된 이 노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장을 틀어잡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흥분을 토로하였다.

명가요는 단지 작가의 창작적 기량으로써만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다. 벽찬 6.15자주통일시대가 《우리는 하나》와 같은 통일주체의 명가요를 탄생시킨것이다.

하기에 6.15통일시대의 더불어 전민족적인 함창으로 울려진 이 노래는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거세찬 열풍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지난 기간 진행된 민족통일대추진행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통

일행사장마다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창공높이 울려 퍼졌고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날의 벽찬 감격을 되살리듯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가 얼마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북남예술인들은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북과 남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을 안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우리는 하나의 겨레임을 과시하였다. 무대에서 북과 남의 예술인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목소리합쳐 구가하였다. 북남예술인들의 모습은 피출도 하나, 언

어와 문화도 하나인 우리 겨레는 결코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통일기를 휘날리며 북녘의 응원단과 남녘의 관중이 함께 더친 《우리는 하나》, 《우리 민족끼리》, 《우리 선수 힘내라》, 《조국통일》의 힘찬 함성, 그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로 가자는 겨레의 괴라는 절절한 웨침이었다.

하나 소원은 하나 하나 애국은 하나 하나

하나 뭉치면 하나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북과 남의 겨레는 앞으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우리는 하나》를 비롯한 통일진군가들을 더 높이 부르며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벌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민족대단결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빛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역사이다.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있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은 겨레를 한몸에 안을수 있는 숭고한 덕망과 열화같은 동료애,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 리론활동과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대단결의 거창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튼튼한 토대

### 1.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일관하게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던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지론을 내세우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속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하였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찬 년대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 그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한 역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주제적립장에 확고히 서서어 민족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민족대단결에서 찾으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업무를 실현하시기 위해 참으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5대방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은 겨레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차리로 내세우고 굳게 단합할데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는 단합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안파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업무를 힘차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82(1993)년 4월 6일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민족의 대단결사업에 이룩하신 민족의 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이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되어있는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여기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천명하시으로써 은 겨레는 가장 폭넓고 공명정대한

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내외반통일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하여올수 있는것은 민족대단결성업에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애국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견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 25돐을 맞으며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2.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밑에 민족 단합의 새 력사를 펼치신 세기의 위인

통일에국의 강령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 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발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온갖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는 가장 옹바른 방도를 제시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었다.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받아안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실로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시다.》고 높이 칭송한것은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고매한 인덕에 매혹되어 터치는 남녘겨레의 심장의 웨침이었다. 세계 진보적인인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성원해나섰다.

로작이 발표된 이듬해에만도 세계 5대륙에서 17억 3 000여만 명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여 서명에 참가한 사실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비껴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성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은 겨레를 애국애족의 가치밑에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기초하여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 계층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통일전선로선을 제

### 3.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밑에 민족 단합의 새 력사를 펼치신 세기의 위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나 가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

시하시고 주제35(1946)년 7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시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위력한 거점을 마련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선서회의는 통일애국의 가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민족분렬의 위기가 무겁게 드리웠던 엄중한 시기에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폭넓은 회합이 마련되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조국통일위업의 초경계에서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이 있어 1970년대에 격해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수 있었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온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과 민족단합의 기운이 고조될수 있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역풍을 과감히 짓부시며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가르침속에서 주제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 그후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어 통일의 민족적력량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주의주장은 물론 불미스러운 과거도 불문에 붙이시고 따듯이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자애로운 인덕의 손길에 이끌려 폭절많은 인생길을 걸은 김구, 문익환, 최희진, 최홍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무명의 사람들이 참된 애국의 길에서 여성을 빛내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투색있는 기여를 할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이 기억하는 통일에국인사로 영성할수 있게 되었다.

은 겨레를 한몸에 안아 밀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은 통일애국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킨 원동력이였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민족대단합의 전통이야말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불멸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다.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밝혀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따라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들이 이어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 시대적사명으로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견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애국애족을 단결의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을 통일애국의 가치아래 묶어세울데 대한 사상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가장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민족대단결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지였다.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주제83(1994)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15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어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열망을 더욱 북돋아주시고 조국통일위업이 순간의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전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받들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통일외의지에 의해 민족의 대국상으로 끝없는 슬픔속에 잠겨있던 주제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게 되었고 그 소식은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동료애로 민족대단합의 새 전기를 펼쳐놓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너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구현된 새 세기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가치였다.

이 가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진것 되었으며 은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장과 북남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민족분렬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변적성과들이 이룩되는 속에 백두에서 하나로 조국통일의 용융한 기류가 역세게 뻗치고 겨레의 통일대하는 줄기차게 흘렀다.

6.15통일시대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난관도 뚫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 철리론을 은 겨레의 심장속에 새겨준 력사적인 시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빛내여주시였다.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차별없이 따듯이 대해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이끌어

주시 위대한 태양의 품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료애, 인덕의 세계에 끝내 남조선의 현대고통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선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생의 뚜렷한 자취를 남길수 있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으로 찾아오는 남녘과 해외의 수많은 동료들을 친히 만나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시며 민족대단결의 비로소 세워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은 겨레의 가슴속에 운명을 맡기고 영원토록 따를 민족의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해외의 은 겨레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 3. 민족대단결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걸출한 위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 려있는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또 한번의 걸출한 위인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오늘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극적인 전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가겠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업적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에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새로운 주제100년대 조국통일진군길에서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가치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시였다.

주제101(2012)년 3월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은 결심을 다시한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을 위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고야말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제102(2013)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첫 신년사에서 은 민족이 단합하여 겨족적인 통일을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고야말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제103(2014)년 10월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리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기를 열어나가는 내용으로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주제104(2015)년에는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내용으로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의 진보적단체들과 국제기구 및 조직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우리 인민의 기적적인 투쟁에 굳은 련대를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었던 숭고한 민족애와 하늘같은 덕망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온 인사들과 해외동도들을 따듯이 안아주시고 민족대단결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남조선의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희장일행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케도우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경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과 무한한 포용력에 격찬을 금치 못하며 장군님을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민족주의자》, 《장군중의 천하제일장군》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을 과감히 나서고 조국통일운동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자주와 단합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가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어 친히 조건과 화환, 추모의 말씀

을 보내주시였으며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겨레가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그처럼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시련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며 필승의 락관을 가지고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전승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뜻과 대범한 결단으로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건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적대와 대결로 얼어붙었던 하늘길, 배길, 땅길로 우리의 대규모대표단이련되어 과전되어 제23차 올림픽을런피어 개최되자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는 대단합의 장으로 전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던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어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전진시키고 남측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을 만나시어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 원천적립장과 사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도 축하해주시면서 민족대단합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주시였다.

세인을 격동시킨 오늘의 경이적인 사변과 성과들을 목격하며 은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진리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깨부르 절감하고있다.

남 녘 겨 레 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세이머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이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 《21세기의 태양이 펼쳐는 위대한 민족단합의 하늘아래 무리가 산다.》고 긍지높이 웨치며 조국통일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정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민족대단결의 양양한 전도와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대단결의 구성성원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은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주제107(2018)년 4월 5일 평 양



#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

공화국의 문화예술, 정보기술 분야에서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용보는 악보와 같이 무용작품의 총동작과 구도 등을 일정한 번호나 글자로 기록한 것이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무용보를 작성하고 편집, 인쇄하기 위한 전용 편집도구이다.

공화국에서는 주제적인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제와 더불어 무용보를 인쇄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정하게 성과도 있었다.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인 주제적인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수자화, 정보화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정보연구소와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무용보편집프로그램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왔다.

이 과정에 무용보편집프로그램개발에서 제기되는 많은 어렵고 방대한 과학리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용성있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을 개발하였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이 개

발됨으로써 무용보의 편집과 인쇄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수자화, 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표준화, 규격화실현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국가과학기술통계로 등록

이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색 있는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하여 정보기술분야에서도 주목할만 한 연구성과로 되고 있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은 응용전망도 좋다. 오늘 세계적으로 인체의 운동을 모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벌어

지고 있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의 개발은 첨단급의 인체운동도의 체계를 개발하는데서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 조선무용연구소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무용보편집프로그램을 부단히 갱신해가고 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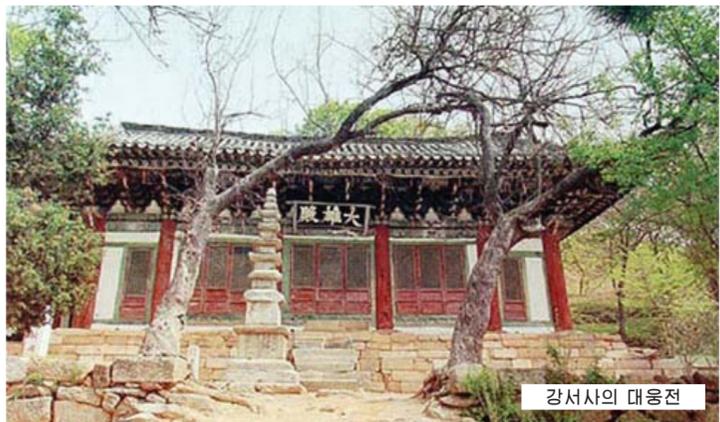


사찰을 처음 세운 것은 고려 초이며 고려말~조선건국초에 이르러 민

통한 부속건물들이 더 세워져 크게 확장되었다.

## 역사·문화·유적

### 고려의 역사를 전하는 강서사



강서사의 대웅전

강서사는 그후 여러차례 불타서 다시 세운군 하였는데 지금은 1665년에 다시 지은 대웅전과 한채의 승방, 고려때에 세운 7층, 5층 돌탑과 비석 등이 남아 있다.

대웅전은 강서사의 중심 건물이다. 이 건물은 잘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은 기단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지은 합각집이다.

건물은 굽직한 흘림기둥위에 바깥 7포, 안 9포의 포식 두공을 장중하게 올렸다. 기둥과 기둥사이에 이어 맨 역방과 평판방도 등직하게 되어 건물의 규모에 잘 어울린다.

건물의 전방이 금단청으

공화국에서 봄철에 들어와 바다새보호구들과 철새보호구들, 겨울새살이터들에 대한 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다연안과 내륙지대에 따라 새들의 이동경로에 맞게 설정된 이 지역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꿀벌이 배에서 나오는 꿀벌로 새끼를 길러내고 먹이를 저장할수 있도록 벌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자연적인 화재발생을 방지하며 마른 땅에 물을 대는 등

하기 위하여 서식지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림농복합경영기술과 유기농법의 도입

등은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공화국

## 철새보호구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간다

벌키우기, 벌매세간내우기가 있다.

꿀벌을 치면 맛 좋고 영양

### 국가·민간·학계·농민

### 꿀벌치기 품습

개를 만들어 벌통에 넣어주었으며 꿀벌통과 그 보호기구, 꿀벌을 다루는 기구, 꿀가공도구들을 잘 만들어 리

가 높은 꿀을 비롯하여 밀랍, 왕벌젖, 벌독 등을 생산할수 있으며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어 수확을 높일수

꿀뜨기는 한해에 두번정도 했는데 보통 여름과 가을에 뜨거나 드물게는 한해 더 남겨 다음해 가을에 가서 많이 뜨기도 했다.

조선에는 30여종의 꿀원천식물이 있어 꿀벌치기에 매우 유리하다.

꿀벌치기에는 꿀벌의 번식, 사양관리, 꿀뜨기, 각종 병해충과 도적벌막기 등이 속하며 꿀벌번식에는 왕



본사기자

친척이란 혼인과 피조로 연결된 사람들의 일정한 사회집단이다.

친척관계는 그 기초로 되는 것이 혼인과 피조이므로 친척의 구성은 역시 혼인과 피조의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친수는 13~14세기 이전부터 친등관계를 표시하는데 쓰여

친수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세대를 한촌(한

## 친척의 구성

이로부터 친척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딸, 처 또는 남편갈래로 이루어진다.

지난날 이러한 친척구성을 가리켜 《3당제》 또는 《1족 2당제》라고 하였다.

《3당제》라고 한것은 친척이 아버지, 어머니, 처 또는 남편의 세갈래로 되어있기때문이며 《1족 2당제》에서 《1족》은 피조로만 연결된 집단인 아버지, 어머니, 처, 누나, 딸, 처 또는 남편의 세갈래로 되어있기때문이며 《2당》은 인척 즉 어머니, 처, 처녀를 이

그러므로 부부사이에는 손수

수 없고 부모와 자녀와 같은 직계와 친형제, 친자매에 대해서는 손수를

이러한 친수는 무한정 멀리까지 캐어갈수는 있지만 대체로 집안은 8~10촌까지, 인척은 5~6촌까지를 친척의 범위로 본다.

본사기자

사람들은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것은 모든 계절에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길가에 제일 유익한 것도 아니다.

봄과 여름 두 계절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적근거가 있다. 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때문에 일찍 자면 잠들기 힘들거나 잘 잘수 없으며 늦게 자야 쉽게

잠들수 있다. 또한 이 계절에 해가 일찍 뜨므로 일찍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가을이면 날씨가 서늘하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기때문에 일찍 자면 밤의 랭기를 받지 않으며 날씨가 서늘하고 활동하기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겨울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찬바람을 맞기 쉽기때문에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따스해질 때 일어나서 활동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유모아

### 말 버릇

옛날 어느 한 고을의 부자 집 마누라가 아들을 데리고 장마당에 갔다.

따라 간 아들은 참외가 먹고 싶다고 하였다.

참외장사에게 이른 부자 집 마누라는 먹음직한 참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종알거렸다.

《요놈은 얼마고 조놈은 얼마요?》 하인들을 유혹하던 부인이 입에 붙어 《요놈 조놈》하는 부자 집 마누라를 울려다보던 참외장사는 대답하였다.

2원이요.》 그 소리에 부자 집 마누라는 모욕감을 느끼며 상임이 말버릇 사남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참외나 파는 주재에 무슨 말버릇이 그래?》 그러자 참외장사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지 않소.》 장마당 한복판에서 망신당한 부자 집 마누라는 아무 대꾸도 못하게 참외를 사달라고 청얼대는 아들만 욕질하며 달아나고말았다.

본사기자

## 사화

### 의병장 박준일가의 최후 (2)

글 김정희, 그림 리성일

어느덧 밤이 깊어 화기에 예한 가족모임도 끝내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자 모 두가 들썩하던 집안이 교묘속에 잠겼다.

신랑신부를 축하하랴도 하려는듯 밝은 달빛만이 신방을 슬며시 어루쌀고 있었다.

새벽녘에 이를무렵, 마을의 여거저기에서 경경이나 하듯 겨꿈내기로 개들이 짖어댔다.

《박준형님, 야단이 났소. 왜놈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요.》

대문밖의 소리에 잠을 깬 박준이 버선발로 뛰쳐나오니 문밖에 준소가 울러내리는 땅을 팔소매로 문지르며 서 있었다.

안음에서 힘장사로 소문난 그는 부산에서 있게 되는 셋류경기에 참가하려 나섰다.

《나서 들어오게. 들어와서 자세히 말하게.》 박준의 손에 끌려 방에 들어선 그는 어찌 부산에서 일어난 참변에 대하여 열에 떠서 이야기하였다.

불시에 부산에 달려들어 성을 함락한 왜놈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남녀로 소 가리지 않고 살륙한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준소는 그 참변에 대해 이를 갈며 토설하였다.

왜놈들의 치벌리는 만행을 듣고 분격하여 박준은 준소

와 함께 친구들을 찾아가 앞일을 의논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남다른 박준은 안음현에서는 물론 경상도일대에서 소문이 났으므로 모두가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여러날 여기저기 다니며 보고 들은 왜놈들의 침략만행에 격분한 박준은 김면, 준소 등 의로운 벗들과 함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의병을 무었다.

안음현에는 오래전에 쌓은 황석산성이 있었다. 우중충한 봉우리들로 둘러막힌 성은 험준한 산밭을 리용하여 쌓은것으로서 적을 방어하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태평성대》만 외우며 나라방비를 소홀히 한탓으로 성은 굳대 군데 무너져내리었다.

싸움준비를 위해 성을 수축하는 일부터 벌려놓은 박준은 출신 앞장서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

무너졌던 성이 복구되자 박준은 칼과 창, 화살을 마련하는 일에 달려박쳤다.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안음현에 왜놈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자 박준은 이웃의 의병들과 편계를 가지고 그들을 힘껏 도와주었다.

것이 모자라는 곳엔 식량을 보장하였다.

자연히 박준의 집은 의병대지휘처가 되었으며 온 집안이 가장의 일을 도와 죽가마 풀듯 하였는데 여기서도 제일 드바쁜 사람은 김씨였다.

안음에서 왜놈을 쳐부실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이웃고을의 의병들을 적군도와와준다는 의로운 소행은 여러 입을 거쳐 당시 관찰사로 나와있던 김성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성일은 박준의병장에 대하여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그를 표창하여 활방버슬을 주었다.

당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백성들의 투쟁에 의해 싸움의 형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3도수군통제사 리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이 바다싸움에서 련전승한 소식과 의령의 홍의장군 객재우의병대를 비롯한 경상도의병들의 투쟁한 싸움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그는 의병들은 물론 왜놈들에게 집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장해주는 일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고을들에는 군량미를 보장하는 문전이 있었는데 박준은 여러 고을의 문전을 맡아 관리하면서 많은 난말을 견어들어 의병들과 관군의 식량을 보장하였고 기근에 시

달려 쓰러졌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냈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안음현 황석산성은 호남으로 가는 목구멍과 같은 요충지입니다. 왜적들은 이 절목을 통과하여 전라도를 쳐들어갈 모략을 꾸미고있습니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안음현 황석산성은 호남으로 가는 목구멍과 같은 요충지입니다. 왜적들은 이 절목을 통과하여 전라도를 쳐들어갈 모략을 꾸미고있습니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결렬시킨 후 재침준비를 갖추고 또다시 대규모적인 침범을 감행하였다.

왜놈들은 1597년 1월(음력) 선봉부대를 울산 서생포에 들이밀었고 7월(음력)에는 600여척의 배에 수많은 병력을 싣고 부산으로 쳐들어왔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안음현 황석산성은 호남으로 가는 목구멍과 같은 요충지입니다. 왜적들은 이 절목을 통과하여 전라도를 쳐들어갈 모략을 꾸미고있습니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경상도 체찰사 리원익은 왜놈들의 제침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에게 이런 장계를 올리였다.

며 함양군수 조종도도 함께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다시 더러운 날강도의 발을 들이던 왜놈들은 남쪽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통과하고는 기세가 등등하여 황석산성으로 향하였다.

《저 섬오랑캐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원수일뿐 아니라 너희 외가를 멸족시킨 우리 집안의 피뎌힌 원수이다. 그러니 이놈들과는 피를 물고서라도 싸워이겨야 하느니라. 선조의 령혼이 고이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고향 땅을 목숨바쳐 지켜내는것이 이 나라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마지막 예곡충정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진 박준의 가르침은 집안식구들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자식들을 쫓 둘러본 박준은 김씨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박준은 김씨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박준은 김씨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박준은 김씨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